

한국타이어, 헝가리 공장 풀가동

2010년 2차 증설 완료 ... 1200만개 생산으로 수요증가에 대응

한국타이어가 헝가리 공장 풀가동을 시작했다.

한국타이어는 2010년 2차 증설을 완료한 헝가리 공장의 생산라인이 풀가동을 시작했다고 10월18일 발표했다.



유럽 시장 공략기지로 2007년 6월부터 가동에 들어간 헝가리 공장은 2008년 500만개로 1차 증설했으며, 2010년 700만개 생산능력을 2단계로 추가 확충했다.

1200만개 생산능력을 갖추게 된 헝가리 공장은 승용차용, 스포츠유틸리티(SUV)용, 경트럭용 타이어 등 총 500여개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또 프리미엄 타이어 <벤투스 S1 에보2>를 포함해 다양한 UHP(초고성능) 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한국타이어는 풀가동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유럽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승화 부회장은 “헝가리 공장의 2차 증설을 성공적으로 마친데 이어 풀가동 체제에 돌입함으로써 글로벌 탑5 진입이 가시화됐다”며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공격적인 생산기지 확충으로 수요 증가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헝가리 라칼마스에 위치한 공장은 1만7545평(5만8000㎡) 부지에서 1일 3만4000개, 연간 1200만개의 타이어를 생산하며 유럽시장 공략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10/18>